

한국적 판타지 내러티브 분석과 기독교윤리의 만남*

성신형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한국적 판타지와 내러티브 분석

III. 한국적 판타지 〈신과 함께〉 내러티브 구조 및 분석

1. 『신과 함께』 원작 웹툰과 영화 〈죄와 벌〉 속의 내러티브 구성
2. 빅데이터를 통해 본 콘텐츠 향유자(독자)들의 발화 내러티브

IV. 한국적 판타지 내러티브와 기독교윤리의 만남

1. 인과응보(정의)에서 사랑의 윤리로
2. 내세(사후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로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0.06>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8030623).

** 주저자, seongshil@ssu.ac.kr

• ABSTRACT •

Christian Ethical Approach toward the Narrative Analysis of Korean-Style Fantasy

Prof. Seong, ShinHyung (Soongsil Univ.)

This study analyzes Korean-style fantasy narrative, interprets their ethical meaning, and approaches them with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narratives while attempting to understand Korean-style fantasy.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s “Along with God - the Two Worlds” as an example of Korean-style fantasy. It is the realization of justice and fairness based on causal retribution. In addition, this study overviews readers’ narratives through big-data analysis, which does not reveal much difference ethically between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showing the lack of proper teaching of Christian ethics to church members. Thus, this study presents Christian ethical alternatives to approach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a Christian ethical practice of achieving justice through love beyond causal retribution, that is, to practice social ethics to create a community of peace, reconciliation, forgiveness, and hospitality. Also, the Korean church should shift from the afterlife-oriented perspective to the ethics of God’s kingdom. Because the kingdom of God has already begun with Jesus’ incarnation, and because the teaching of Jesus to live a life of loving his enemy means living a future-oriented (eschatological hope) life. Creating new narratives through these ethical lives will be the way to save the Korean church.

Key words: Korean-Style Fantasy,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Narrative Analysis, Narrative Ethics, Christian Social Ethics, Paul Ricoeur, Paul Tillich, Emmanuel Levinas

I. 들어가는 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기 시작하였고,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이러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¹⁾ 한국교회의 위기는 한국교회가 공적인 기구로서 그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현상들을 근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한국의 극우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변모된 데에 그 주요한 원인이 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극우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혐오로 대응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대중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적 대안을 찾고자,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한국 문화계의 가장 큰 장르 중 하나인 한국적 판타지에 들어 있는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이 내러티브를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기독교사회윤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한국 대중문화의 한 장르인 한국적 판타지를 들여다보면서, 그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함으로써 현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 공동체를 위한 내러티브 윤리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1) 필자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검색어로 학술연구자료 검색을 시도하였는데,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1998년 IMF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대두되었고, 최근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최고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선,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가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실시한 한국개신교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비기독교인들의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3.6% 밖에 되지 않아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2021년 7월7일 접속).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선호 의식은 크게 줄어들게 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54>, 2021년 7월7일 접속).

첫째, 본 연구는 한국적 판타지 내러티브 분석의 이야기와 담화의 분석을 통해서 인간 삶의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읽어내려고 한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 한국적 판타지 내러티브를 분석하려고 한다. 문학작품, 영상매체와 게임 등 한국적 판타지의 장르는 다양하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웹툰과 영화 〈신과 함께〉의 내러티브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신과 함께〉를 향한 사회적 상황에 주목한다. 이 작품 속의 내러티브 구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원작 웹툰과 비교하면서 영화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의 의미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를 수행하면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담화 속의 인간관, 사회·문화적인 메시지, 심리적 기저들이 영화 전체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러티브 분석은 작품 분석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영화는 관객의 반응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품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을 마치면,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향유자(관객)들의 내러티브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간 순서에 따라 웹툰에서 영화로, 창작자에서 일반 대중으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공간으로 SNS와 블로그 등의 감상평을 빅데이터로 분석코자 한다. 빅데이터를 통한 중심키워드와 연관키워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신과 함께〉의 세계관이 대중에게 소구되어질 때, 향유계층의 반응을 추적하고 이것이 세계관의 내면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본다.

둘째, 본 연구는 내러티브 윤리에 주목한다. 윤리학에서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은 덕윤리에서 발견된다.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오랫동안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의 흐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맥킨타이어(MacIntyre)에 의해서 다시 조명받게 되었다. 맥킨타이어는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

평화, 정의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사회변화와 그 상황에 직면한 인간에게 의미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음을 직시하면서, 윤리의 내러티브적인 특징에 주목하였다.²⁾ 이 지점이 인간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내러티브 분석)가 자연스럽게 윤리와 만나는 지점이다. 물론 분석과 이해도 학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임에 틀림없지만, 그 윤리적 의의를 찾아가는 것은 내러티브 분석이 긴박하게 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 사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내러티브 분석과 아울러 내러티브 윤리의 적용을 통해서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매몰되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도덕적 체험과 공동체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또 실천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한국적 판타지 내러티브 분석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인 적용이다. 내러티브 윤리를 기독교윤리학에 접목시킨 대표적인 학자는 스탠리 하우어워즈(Stanley Hauerwas)이다. 하우어워즈는 맥킨타이어의 덕윤리에 대한 내러티브적인 접근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기독교 내러티브 윤리학을 발전시켰다. 하우어워즈는 완성된 윤리로서의 내러티브 윤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위 중심의 윤리에서 행위자(moral agency)중심의 윤리로의 전환을 기획하면서 삶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내러티브적인 통일성을 추구하였다. 내러티브적인 통일성이란 행위중심의 획일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성품(덕)에서 기인하는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기독교인의 공동체성에 기초한 평화와 사랑의 기독교 공동체 내러티브 윤리를 형성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1984, 2008), 제2장.

내러티브 윤리와 기독교윤리는 모두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윤리이다. 개인의 도덕적인 체험으로 마무리되는 어떤 행동의 결과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개인이 만들어가는 내러티브(이야기와 담화)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풀어나가는 윤리적인 과정의 중심이 된다.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의 형성이 건강하고 정의로운 과정도 중요하다.³⁾ 이런 점에서 내러티브 윤리와 기독교윤리는 자연스럽게 만난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건강한 내러티브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 문화적인 현상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문화적인 현상에 대한 건강한 이해보다는 배제의 논리로 사회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로서 기독교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교회의 윤리가 재고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와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내러티브 형성 과정의 윤리적 의의를 고찰하면서 기독교 윤리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적 판타지와 내러티브 분석

한국적 판타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주목받은 문화 작품으로 한국 전통의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문화 콘텐츠(문학, 영상, 게임 등)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한류문화의 세계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콘텐츠들이 세계 속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트렌드는 오늘날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한류의 세계화’라는 용어는 한국 문학이 세계와 만나면서 만들어낸 ‘문승(文勝)’의 전통과 일맥상통한다. 강대국의 문학을 수용·거부·굴절 등의 역사

3) 스텐리 하우어워즈, 문시영 옮김,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28-32.

를 거치면서 발전시켜왔던 생존방식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질(文質)을 나무랄 데 없는 최상의 것으로 발전시켜가면서 이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문화강국으로서 생존하는 방법을 모색했다.⁴⁾

이러한 문승의 전통에 기초한 문화 현상이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한류 문화의 대표적인 장르 중 하나가 바로 한국적 판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 콘텐츠들이다. 사실, 한국적 판타지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개념이다. 이는 1990년 후반부터 서구 사회의 판타지 작품들(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호빗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 문화에 판타지가 깊게 각인되던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한국적 판타지는 단순히 영상매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통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판타지적인 요소들(영웅 서사, 도깨비, 저승과 이승, 환생 등)이 녹아 들어간 다양한 문화 장르(동화, 소설, 영상매체, 게임 등)를 일컫는 것이다.⁵⁾

한국적 판타지, 특히 영상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예를 들어, 2016년 절찬리에 방영된 ‘도깨비’는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을 훨씬 능가(평균 시청률 20%)하는 효과를 내었으며, 한국인들에게 판타지 로맨스의 붐을 일으켰으며, 미디어영상뿐 아니라, 관련 산업 분야가 세계에 진출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7년 말에 개봉된 영화 ‘신과 함께’는 웹툰과 단행본의 인기를 훨씬 뛰어넘어 1,500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감상한 국민영화가 되었다. 이는 실로 다수의 한국인들이 즐기는 문화 매체의 주요 장르 중에 하나로 한국적 판타지가 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적 전통에서 내려온 다양한 판타지적 소재들은 한국인들의 정서를 자극한 문화적 매체로 자리매김하게

4) 이혜순, 『전통과 수용 - 한국 고전문학과 해외교류』 (서울: 돌베개, 2010), 230-231.

5) 허만욱, “한국 판타지 장르문학의 흐름과 발전 전략 연구,” 『우리문학연구』 34(2011), 485-514.

된 것이다. 한국적 판타지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은 본 연구를 기획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내러티브 연구는 서사학(naratology), 서사이론(narrative theory)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story)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현대에 들어서는 영화나 광고 등을 포함)작품의 서사구조, 즉 작품의 구조와 장치, 세계 인식 등의 전반적인 구조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내러티브 연구는 20세기 중 후반에 문학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크게 대두되어 오늘날 미디어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내러티브 분석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가 채트먼(Chatman)의 서사이론인데, 채트먼은 그의 서사이론에서 이야기(story)와 담화(discourse)가 합쳐져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이야기에는 사건들과 등장인물(사물포함)이 그리고 담화에는 서사의 전달구조(언어)와 표현 방식(비언어적 요소)이 포함된다.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서 단순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⁶⁾

오늘날 내러티브 분석은 인문학에서의 문학비평이나 매체연구의 방법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교육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의학, 기독교 신학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⁷⁾ 한국적 판타지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은 한국적 판타지가 제공하는 서사 구조에 대한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작품에 들어간 이야기와 담화를 살펴봄으로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6) Seymour B. Chatman, *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26.

7) 전호재, “내러티브 관련 연구논문에 대한 주제어 분석:KCI 등재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내러티브교육연구』, 2-3(2014), 69-82. 본 논문에 따르면 KCI 등재 논문 중에서 내러티브 관련 논문이 521편이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독자는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한국적 판타지 작품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읽어낼 수 있다.

III. 한국적 판타지 <신과 함께> 내러티브 구조 및 분석

본 연구는 한국적 판타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한국적 판타지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웹툰 『신과 함께』와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신과 함께 - 죄와 벌>의 내러티브에 집중하였다. 내러티브 분석은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작품을 분석하였고, 둘째는 작품(웹툰과 영화)을 향유한 사람들의 발화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에서 드러난 발화 내러티브에서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윤리적 특징을 살피면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1. 『신과 함께』 원작 웹툰과 영화 <죄와 벌> 속의 내러티브 구성

한국인에게 ‘저승’이라고 알려진 사후세계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드러내려고 노력한 주호민의 웹툰 『신과 함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을 지옥의 이야기로 그려내어서 많은 독자들의 반응을 이끌었다. 특히 저승은 이승과는 달리 인과응보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판타지 속에서만이라도 기존의 가치가 전복되는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마음이 그 반응을 얻어낸 것이다.⁸⁾ 이러한 지옥의 모습들은 한국의 저승신화들에서 유래한 것들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이용한 것이다. 웹툰 『신과 함께』

8) 장은진, “한국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사후세계의 환상성 - 웹툰 <신과 함께 - 저승편>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1(2016), 255-273.

속에 등장하는 지옥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웹툰 『신과 함께』 속에 등장하는 지옥의 모습

지옥	왕	관련된 행위(죄목)
도산지옥	진광대왕	혈벗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화탕지옥	초강대왕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빌리고 돌려주지 않았거나, 받기만 한 경우)
한빙지옥	송제대왕	타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자
검수지옥	오관대왕	음행을 한 죄와 술을 함부로 마신 죄
발설지옥	염라대왕	입으로 지은 죄(거짓말, 이간하는 말, 무시하는 말, 욕보이는 말 등)
독사지옥	변성대왕	가족이나 지인이 지은 죄(일종의 방조죄)
거해지옥	태산대왕	남을 속인 죄

지옥도의 모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지하철역, 변호사사무소, 모터보트 대여소, 호텔, 카페(Hellbucks Coffee), 하이패스, 인터넷서비스(Joogle.com) 등이 등장한다. 이는 현대화된 공간의 현대화된 삶의 모습을 저승에 반영함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주인공 김자홍과 그 주변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우선 주인공 김자홍은 현대인들과 같은 사람이다. 변변한 능력 없이 열심히 살다가 삶을 마감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독자들의 관심을 이끈다. 변호사 진기한은 진광대왕 앞에서 훌륭한 변론으로 김자홍을 돕는다. 김자홍을 따라 다니는 차시들(리더 강림, 일직차사 해원맥, 월직차사 이덕춘)은 각자의 능력으로 김자홍을 돕는다. 등장하는 왕들도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컴퓨터를 배우는 염라대왕이다. 이와 같이 웹툰 『신과 함께』에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투영되면서 현대인들에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⁹⁾

회편 영화 <신과 함께 - 죄와 벌>은 웹툰의 장점인 현대화된 신화의 장치들을 과감하게 빼고, 조금 더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CG기술로 과감하게 더했다. 여기에 인물들의 웃음이 요소를 가미하여 영화적인 요소를 더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지옥의 모습도 관객의 입장에서 관련된 행위와 연결되도록 각색하여 지옥의 이름을 만들었다. 대신 김자홍의 특정 행동을 연결하여 현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했다. 영화 속의 지옥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표 2> 영화 <신과 함께 - 죄와 벌>에 나오는 지옥

지옥	왕	김자홍의 삶과 관련된 행위(죄목)
살인지옥	변성대왕	동료 소방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나태지옥	초강대왕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최우선으로 살아온 죄
거짓지옥	태산대왕	어머니와 동료 소방관의 딸에게 거짓으로 편지를 쓴 죄
불의지옥	오관대왕	죄 없음
배신지옥	송제대왕	죄 없음
폭력지옥	진광대왕	동생을 폭행한 죄
천륜지옥	염라대왕	어머니를 살해하려던 죄

영화는 웹툰과 달리 영상 기술에 의존하여 시간을 빨리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웹툰에서 시도한 공간의 현대적 연결 방법보다는 해당 인물의 스토리 전개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김자홍을 기소하기 위해서 나온 판관들은 다소 어리석게 그려져 있으며 여성으로 바뀐 변성대왕은 푼수끼가 있고 변덕스럽지만 정이 많다. 송제대왕은 아름답고 도도한 여성으로 바

9) 본 연구에서는 제1편인 '저승편'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이상의 인물들만 언급했으나, 제2편 '이승편'과 '신화편'에는 더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는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뀌었고, 태산대왕은 어린아이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영화 <신과 함께 - 죄와 벌>에서는 인물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기본 주제를 내러티브로 이끌어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 빅데이터를 통해 본 콘텐츠 향유자(독자)들의 발화 내러티브

본 연구는 콘텐츠 향유자들의 발화를 통한 내러티브를 살펴보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빅데이터 추출은 전문 회사인 썬트랜드(www.some.co.kr)에 의뢰하였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 까지 ‘신과 함께’라는 주제로 소셜미디어(커뮤니티, 블로그, 트위터 등)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얻었다. 이 시기는 주호영의 웹툰 『신과 함께』가 영화로 제작되어 방영된 시기이다. 1편 <죄와 벌>은 2017년 12월에 상영되었으며, 2편 <인과 연>은 2018년 8월에 상영되었다. 본 연구는 1편



<“신과 함께”를 주제로 뽑은 데이터>

〈죄와 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기 기간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서 웹툰 독자들이 발화한 데이터와, 영화 상영 기간 중 영화를 중심으로 독자들이 발화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추출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윤리적 관점과 연결된 주요 연관키워드들을 분석한 결과는 위의 그림과 같다.

여기에 언급한 키워드들은 상기 빅데이터 분석 시기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키워드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을 뽑은 것이다. ‘신’과 ‘사후세계’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삶과 죽음 살인과 범죄 등의 단어들도 꾸준히 언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발화 데이터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주제어들을 수집하여, 2차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주제어들이 발화된 SNS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들의 내러티브를 읽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이트들을 들여다보면서,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표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그들의 내러티브를 읽어내었다. 본 연구가 처음 세운 목표는 기독교인의 발화, 즉 판타지 〈신과 함께〉를 감상한 후에 기독교인이 직접 발화한 내러티브를 빅데이터로 추출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서로 비교해보려고 하였으나, 빅데이터의 특징이 불특정인의 발화를 추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표는 이루지 못하였다. 대신 〈신과 함께〉라는 주제어와 상기의 키워드들을 포털에서 검색하여 방문한 SNS 사이트 상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표현의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발화 내용이 구분되는 명확한 지점이 없었다. 분명 〈신과 함께〉가 드러내고 있는 세계관과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내세관은 차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화자들의 표현상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는 발화의 내용들이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주로 이루었다. ‘잘못된 행동은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은 정의를 세우는 관점에서는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용서와 화해를 통한 정의를 실현한다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는, 두 번째와 연결되는데, 독자들이 발화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는 상벌이 분명한 판사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판타지 콘텐츠 〈신과 함께〉를 향유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IV. 한국적 판타지 내러티브와 기독교윤리의 만남

이상에서 한국적 판타지 장르의 대표적 작품 중 하나인 〈신과 함께〉의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이제 본 장에서는 내러티브의 윤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작품에 대한 향유 내러티브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점은 기독교윤리에서 강조하는 윤리적 기준을 교회가 혹은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알기는 하지만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교회다움(기독교인 다움)을 잃지 않고, 사회에서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윤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 내용은 한국적 판타지 내러티브의 윤리적 함의이다. 원작(웹툰과 영화)에서 이야기(내러티브)하고자 하는 윤리적 함의는 사후세계의 신들이 망자들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윤리적인 삶이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다음 생에서의 삶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단순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기저를 놓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현실의 삶이 팍팍하고 억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단순한 논리는 매우 잘 들어맞는다. 또한 〈신과 함께〉 내러티브는 이러한 윤리적 판단이 단순한 흑백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주인공 김자홍의 상황을 이해하는 변론의 과정에서 긴장과 함께 해석적인 요소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윤리적 사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다. 〈신과 함께〉 내러티브는, 리콰르가 주장한 것처럼, 삶을 단순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근거한 해석으로 실천적 지혜가 삶을 이끌어가는 윤리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삶은 작품의 내러티브를 이해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해석의 활동이다.¹⁰⁾ 분명 내러티브는 윤리와 만나고 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내러티브이며, 내러티브 분석은 내러티브의 윤리적 적용을 통해서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도덕적 체험과 공동체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실천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관점에서 판타지 내러티브의 윤리적 함의가 기독교윤리와 만나는 지점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인과응보(정의)에서 사랑의 윤리로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적 판타지 내러티브 분석을 통한 윤리적 해석의 기독교윤리적 적용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인과응보적인 윤리적 해석을 넘어서서 기독교윤리적인 용서와 화해, 즉 사랑에 기초한 내러티브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앞서

10) 변경원, “텍스트의 고난과 현실적 고통의 만남을 통한 비판적 프로네시스의 생성”, 『기독교사회윤리』, 35(2016), 212-213.

11) 공병혜, “임상 현장에서 내러티브의 윤리적 가치”, 『범한철학』, 59(2010), 436-439.

살펴본 빅데이터 분석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윤리적 의식이 인과응보의 차원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 억울, 반칙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에서 〈신과 함께〉가 흥행을 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와 ‘공정’은 2010년대 이후로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로 등장하였다. 2010년 광복절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공정사회’가 강조된 이후, 같은 해에 출간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 사회를 뒤흔든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의와 공정’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공정’이라는 말은 ‘능력 중시’라는 의미로 바뀌었고, 자연스럽게 ‘능력주의 사회’가 형성되어, 사회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불공정한 결과’의 문제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치환되어버리고 말았다. 능력주의 사회는 불행하고 불공정하다. 왜냐하면 사회 부조리로 발생한 실패를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졌으니 스스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¹²⁾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과 함께〉가 ‘정의와 공정’을 플롯으로 구성하여 윤리적인 내러티브를 형성한 것이 영화의 흥행에 성공적인 역할을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오늘날 정의와 공정이 신자유주의적인 기류에 휩쓸려서 ‘능력주의’로 편입되어 가고 있다면, 과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정’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필요하다.

12) 김선욱, “능력과 공정과 정의 - 마이클 샌델의 능력주의 비판,” 『철학과 현실』 2021년 3월 칼럼, 124-128.

‘정의와 공정’을 주제로 윤리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용은 존 롤스이다. 이 문제를 철학적·사회학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롤스의 영향은 매우 크다.¹³⁾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롤스보다는 예수의 황금률 설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콘텐츠 함유자들의 발화(내러티브)가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의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한국 교회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와 공정의 문제는 윤리적 황금률 즉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준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금률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윤리의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황금률은 ‘보편적 윤리규범’으로서 인류가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저항하면서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윤리적 토대를 제공해주며, 둘째 ‘타자중심 윤리’로서 타자를 위해서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셋째 ‘공감적 윤리’로서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나와 타자가 함께 공감하는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¹⁴⁾ 이러한 특징은 인간의 상호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 오늘날 정의와 공정의 의미를 탐구하는 중요한 주제들로서 황금률의 윤리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황금률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정의에 기초한 상호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예수의 황금률 설교를 살펴보자. 복음서에서 예수의 황금률에 대한 언급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한다. 산상수훈

13) 철학, 사회학, 윤리학 분야에서 롤스는 매우 많이 등장한다. 롤스를 검색어로 학술논문을 검색해보면 311편 가량의 논문이 검색된다. 그러나, 기독교윤리적인 관점에서 롤스에 대해서 탐구하고 설명한 논문은 많지 않다. 기독교 신학과 롤스의 정의론을 접목시켜서 깊게 발전시킨 논문은 고재길의 “공정사회와 기독교정의론에 대한 연구”와 김상득의 “존 롤스의 정의론과 성경적 정의관” 등이 있다.

14) 조용훈,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본 황금률 윤리,” 『신학과 실천』, 63(2019), 658-663.

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는 황금률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동시에 예언(선지자)의 기초임에 설교하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황금률을 언급함으로써 기도와 윤리적인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평지설교의 황금률은 마태복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누가복음에서는 원수사랑 설교 중간에 황금률이 마치 삽입되어있는 것처럼 등장한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원수사랑(5장 38-48절) 설교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둘을 하나로 합쳐있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하면서 세리·이방인(마태) 혹은 죄인(누가)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의가 더 나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의 설교에 대한 해석 때문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황금률은 단순히 상호성에 바탕을 둔 윤리적 삶을 넘어서는 기독교인의 윤리의 기초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황금률은 위에서 언급한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상호성에 바탕을 둔 윤리의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기독교의 근원적인 가르침, 즉 기독교 윤리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리코르가 논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코르는 자신의 논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주목하면서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해서 논증하였다.¹⁵⁾ 우선 리코르는 사랑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석한다. 그 첫째는 사랑에 대한 칭송 담론으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랑에 대해서 두드러진 관심을 보이면서 이를 즐거워한다. 그

15) Paul Ricoeur, *Amour et justice*, 박건택 역, “사랑과 정의”, 『신학지남』, 239(1994) 232-253. 그리고 최현 역, “사랑과 정의”, 『시민과 세계』, 7(2005), 490-512. 이 글은 이상과 같이 두 번 번역되었다. 본 논문은 더 최근에 출간된 최현의 번역을 참고하였다.

두 번째는 사랑에 드러나는 불편함으로, 명령적인 형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마치 칸트의 정언명령처럼 도덕적 원리를 제공하는 일차적 명령으로 작용한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사랑은 감정(혹은 느낌)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사랑은 다양한 감정으로 전이되면서 때로는 아가페적인 느낌으로 때로는 에로스적인 것으로 작용한다.¹⁶⁾ 한편 정의는 사랑과는 변증법적인 대립 관계에 있는데, 그 이유는 정의는 이념적으로 분배와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툼을 조정하고, ‘공정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상호성에 입각한 ‘공정한 이익’이라는 이상은 실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¹⁷⁾ 사랑의 숭고함은 칭송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정의의 규칙에서 사랑은 동기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사랑과 정의가 서로의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랑과 정의의 이분법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서로 작용할 수 있는 변증법적인 길을 찾기 위해서 리콰르는 예수의 황금률에 주목한다.

리콰르는 예수의 황금률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 논리를 제공한다. ‘등가의 논리’와 ‘넘침의 논리’이다. 등가의 논리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논리로 상호성에 기초한 논리이고, 넘침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한 후 ‘좋았다’고 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은혜의 논리’이다. 등가의 논리가 윤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넘침의 논리는 초윤리적인(hyper-ethical) 것이다.¹⁸⁾ 여기에서 리콰르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황금률은 등가의 논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넘침의 논리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황금률이 등가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성서의 초윤리적인 전통은 무너지

16) 폴 리콰르, 최현 옮김, “사랑과 정의,” 499-493.

17) 같은 글, 501-503.

18) 같은 글, 505-506.

게 된다. 만일 황금률이 인과응보적인 차원의 등가의 논리(정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것은 예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초윤리적인 가르침과 서로 극심한 모순을 일으키고 만다. 한편 황금률과 초윤리적인 가르침이 서로 다른 것이라면, 누가복음의 예수의 가르침은 모순된 것이 되고 만다. 초윤리적인 사랑의 계명은 황금률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리콰르는 정의와 사랑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발견한다. 초윤리적인 사랑이 비도덕적인 것(the immoral)이나 도덕과 관계없는 것(the nonmoral)이 되지 않고 도덕적인 것(the moral)이 되려면, 정의의 원리로 구성되는 도덕성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황금률을 받으려야 한다. 즉 예수의 황금률은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단순한 등가의 논리로 성립된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려면, ‘내가 베풀도록 내가 먼저 베풀다’는 공리주의적인 등가의 논리를 넘어서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베풀다’는 사랑의 원리로 황금률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인 상승작용이 드러난다. 사랑(초윤리)은 정의(황금률)로 그 윤리적 특징을 드러내며, 정의(황금률)은 사랑(초윤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¹⁹⁾

우리는 리콰르의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기독교윤리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윤리는 정의를 새롭게 해석해서 사랑을 실현하는 도구로 만든다. 그것은 황금률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다. 바로 기독교윤리의 자리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정신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름으로 기독교는 이 사회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⁰⁾ 기독교인은 리콰르

19) 같은 글, 507-511.

20) 김선욱, 성신형, “용서에 대한 성서적 의미 탐구와 기독교사회윤리적 해석,” 『기독교사회윤리』, 46(2020), 139-141.

의 이러한 윤리를 ‘주교받음’의 윤리가 아니라, ‘거저줌의 윤리’로 이해하면서 인과응보적 주교받음의 논리를 벗어나서 사랑의 실천을 통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야 한다.²¹⁾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교회가 용서와 화해의 실천을 통한 기독교윤리적 대안들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제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사회는 현대사적인 굴곡(식민지배, 한국전쟁, 군부독재 등)으로 인해서 매우 커다란 사회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과응보적인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용서와 화해의 윤리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이다.

2. 내세(사후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로

본 연구가 판타지 내러티브 분석을 통한 기독교윤리적 접근의 두 번째 과제로 삼은 것은 이제 한국 교회가 내세(사후세계)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의 나라(공동체) 내러티브로 그 윤리적 과제를 옮기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천국(천당) 개념은 내세지향적인 사후세계의 의미가 강하다. 이는 한국의 종교전통과 서구 기독교의 만남이 만들어낸 독특한 융합의 산물이다.²²⁾ 천당과 지옥은 불교적 용어이다. ‘극락,’ ‘정토,’ ‘하늘,’ ‘저승,’ 등의 불교적 내세관을 대표하는 개념들이 18세기 말 가톨릭교회와, 19세기 말 개신교회가 한국에 유입되면서 점차로 두 문화가 융합된 형태로서의 내세관이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본래 불교에서의 내세관은 기독교처럼 극단적 이분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²³⁾ 그러나

21) 성신형, “한국 사회의 혐오 현상에 대한 분석과 기독교윤리적 제언 - 예멘 난민이슈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7(2019), 265.

22) 이찬수, “상이한 듯 상통하는 내세관 - 한국적 상황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2011년 11월호, 56.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내세관은 이분법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데에는 한국에 들어온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영향이 매우 컸다. 당시 미국에서는 무디를 중심으로 세대주의적인 내세관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이 관점은 현실 세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피안의 세계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지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현실 세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피안의 세계를 강조하는 가르침을 주었으며, 당시 한국 사회의 상황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기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²⁴⁾ 이러한 가르침의 결과 오늘날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피안 세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신과 함께’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내러티브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의 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교회의 강점과 단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국 교회는 종교적인 열정은 매우 강하지만, 사회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²⁵⁾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단점이 매우 크게 부각되어,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비기독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피안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요한의 묵시에서 기인한다. 특히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과정에 대한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에서 기인한다.

23) 같은 글, 51-54.

24) 김태섭, “한국교회의 천국(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이해,” 『종교와 문화』, 30(2016), 104-108.

25) 조용훈, “산상설교의 윤리적 특징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8-4(2016), 248.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자주의적(근본주의적)인 해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다. 예수는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미래에 완성될 것으로, 지금은 그 완성 과정의 한 시점이다.²⁶⁾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예수가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특징은 종말론적인 희망에 근거한 삶이다. 종말론적인 희망이란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의 삶의 현실에서 구현하는 삶이다. 개인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교회 즉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삶이다.²⁷⁾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내러티브 윤리와 자연스럽게 만난다. 왜냐하면 내러티브 윤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윤리는 모두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²⁸⁾ 개인의 도덕적인 체험으로 마무리되는 어떤 행동의 결과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개인이 만들어가는 내러티브(이야기와 담화)는 공동체에서 함께 풀어나가는 윤리적인 과정의 중심이 된다.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의 형성이 건강하고 정의로운 과정도 중요하다.²⁹⁾ 이런 점에서 내러티브 윤리와 기독교윤리는 자연스럽게 만난다.

한국교회(기독교인들의 공동체)는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전에 먼저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인가

26) 김태섭, “한국교회의 천국(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이해,” 109-118.

27) 조용훈, “산상설교의 윤리적 특징에 대한 연구,” 246-247.

28) 이장형, “남북통일논의의 기독교 내러티브 윤리적 접근,” 『기독교사회윤리』, 36(2016), 155.

29) 스텐리 하우어워즈, 문시영 옮김, 『교회됨』 (서울:북코리아, 2010), 28-32.

에 대해서 톨리히를 통해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톨리히는 20세기 초중반의 엄청난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비존재의 힘(악)을 실감하였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기독교의 과제로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주체가 되어 비존재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용기(존재에의 용기)를 주장하였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인간(용기 있는 존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창조 (Self-creativity), 자기-통합 (Self-integration)과 자기-초월 (Self-transcendence)의 과정이 필요하다.³⁰⁾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화, 윤리, 종교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기-창조는 문화를, 자기-통합은 윤리를, 자기-초월은 종교를 형성하게 된다. 톨리히는 이러한 분석 위에 문화를 창조하고 사랑의 윤리를 발전시키며, 하나님과 교류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동체는 신율(theonomy)을 따르는 사랑의 공동체이다.³¹⁾ 이것이 기독교윤리가 지향하는 공동체 윤리의 기초이다.

사랑의 공동체(교회)가 추구하면서 형성해야 할 내러티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사랑의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가르친 길은 원수 사랑과 환대의 실천이다. 첫째, 원수 사랑의 길은 평화와 화해 그리고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원수 사랑의 길을 실천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화해·용서를 실현하는 사회윤리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대립과 반목의 삶에서 화해를 실현하는 것이고, 미움을 견어내고 용서를 실현하

30) Paul Tillich, *Theology of Cultu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제1-2부, 그리고 *Systematic Theology III*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3, 1976), 제4부 1장.

31) 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I*, 제2부.

는 것이기에 사회윤리이다.³²⁾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종말론적인 희망을 오늘의 삶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화해·용서는 실현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수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로 가능해질 때, 인류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래를 위한 종말론적인 희망을 지닌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말론적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이다.³³⁾ 둘째, 무조건적인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사랑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25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잘 드러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실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쉴 곳을 마련해주고, 돌봐준 사람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다가온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를 구현하는 길이다.³⁴⁾ 이와같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내러티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이 속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가 이뤄지는 공동체, 즉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드러나게 된다.³⁵⁾ 평화·화해·용서, 그리고 환대를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 세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32) 조용훈, "산상설교의 윤리적 특징에 대한 연구," 248.

33) Paul Ricoeur, *La Mémoire, l'Histoire, l'Oubli*, Paris, Seuil, 2000, trans., Kathleen Blamey and David Pellauer, *Memory, History, Forgett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457-506(epilogue).

34) 환대는 매우 큰 주제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 것 같다. 환대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철학 사항을 전개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임마누엘 레비나스이다. 레비나스는 그의 책 『전체성과 무한』에서 '환대'의 윤리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환대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리다의 『환대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한다.

35) Stanley Hauerwas, *The Peacable Kingdom*,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여기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이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적 판타지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그 윤리적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윤리와의 만남을 시도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한국적 판타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면서, 그 속에 드러나고 있는 내러티브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한국적 판타지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한 장르로 오늘날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콘텐츠 본연의 내러티브와 콘텐츠 향유자의 내러티브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적 판타지의 한 예로 〈신과 함께-죄와 벌〉를 선택하여 내러티브를 분석하였고, 그 윤리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신과 함께〉 내러티브에 드러나고 있는 윤리적 함의는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정의와 공정’의 이슈를 가장 근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신과 함께〉 독자(향유자)의 내러티브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분석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윤리의식에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교회가 공동체의 구성원(교인)들에게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하거나, 실천적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기독교윤리적인 대안을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내러티브는 공동체가 함께 그들의 윤리적인 이야기를 형성해가는 것으로, 본 연구는 인과응보(정의)적인 세계관에서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기독교윤리적인 실천을 제안한다. 이는 평화·화해·용서·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윤리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

적·윤리적 이해를 수정하여야 한다. 내세중심적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고, 평화·화해·용서·환대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미래 지향적인(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내러티브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교회의 공동체성은 회복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윤리적 이론을 바탕으로 주장된 실천과제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가 과제로 남게 되었다. 즉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 과제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목회윤리적 차원의 구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본 연구의 과제가 되었다. 앞으로 연구적인 차원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본 연구가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어서, 평화·화해·용서·환대를 실천하고 있는 목회의 현장을 찾아서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들을 찾아가고 이해하면서, 더 좋은 대안적인 내러티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장의 이야기(내러티브)를 듣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그것들을 담아내는 학문적인 작업들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면서 본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 갤럽리포트.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2021년 7월 7일 접속
- 고재길. “공정사회와 기독교정의론에 대한 연구. 「선교와 신학」, 35(2015), 161-199.
- 김상득. “존 롤즈의 정의론과 성경적 정의.” 「동서철학연구」, 100(2021), 435-459.
- 김선욱. “능력과 공정과 정의 - 마이클 샌델의 능력주의 비판,” 「철학과 현실」 2021년 3월 칼럼, 119-132.
- 김선욱, 성신형. “용서에 대한 성서적 의미 탐구와 기독교사회윤리적 해석.” 「기독교사회윤리」, 46(2020), 115-145.
- 김태섭. “한국교회의 천국(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이해.” 「종교와 문화」, 30(2016), 99-130.
- 변경원. “텍스트의 고난과 현실적 고통의 만남을 통한 비판적 프로네세스의 생성.” 「기독교 사회윤리」, 35(2016), 193-218.
- 성신형. “한국 사회의 혐오 현상에 대한 분석과 기독교윤리적 제언 - 예멘 난민이슈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7(2019), 247-271.
- 이양수. “리콤피와 비판적 프로네시스.” 「철학탐구」, 37(2015), 191-235.
- 이장형. “남북통일논의의 기독교 내러티브 윤리적 접근.” 「기독교사회윤리」, 36(2016), 143-178.
- 이찬수. “상이한 듯 상통하는 내세관 - 한국적 상황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2011년 11월호, 50-57.
- 이혜순. 『전통과 수용 - 한국 고전문학과 해외교류』 서울: 돌베개, 2010
- 장은진. “한국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사후세계의 환상성 - 웹툰 〈신과 함께 - 저승편〉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1(2016), 255-273.
- 전호재. “내러티브 관련 연구논문에 대한 주제어 분석: KCI 등재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내러티브교육연구」, 2-3(2014), 69-82.
- 조용훈. “산상설교의 윤리적 특징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8-4(2016), 229-252.
- _____.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본 황금률 윤리.” 「신학과 실천」, 63(2019), 655-676.

- 주호민. 『신과 함께』. 서울: 문학동네, 2013.
- 최승현. “국회보다 낮은 한국교회 신뢰도…비신자 85%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에게 부정적 감정.”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54>). 2021년 7월7일 접속
- 하우어워즈, 스탠리. 문시영 옮김.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 허만옥. “한국 판타지 장르문학의 흐름과 발전 전략 연구,” 『우리문학연구』 34(2011), 485-514.
- Chatman, Seymour B., *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 Derrida, Jacques, *De L'hospitalite*. 남수인 옮김, 『환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2004
- Hauerwas, Stanley. *The Peacable Kingdom*,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 Levinas, Emmanuel. *Totalité et infini*. 김도형, 문성원, 손영창 옮김, 『전체성과 무한』. 서울: 그린비, 2018.
-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1984, 2008.
- Ricoeur, Paul. *Amour et justice*, 최현 옮김, “사랑과 정의”, 『시민과 세계』, 7(2005), 490-512.
- _____. *La Mémoire, l'Histoire, l'Oubli*, Paris, Seuil, 2000, trans., Kathleen Blamey and David Pellauer, *Memory, History, Forgett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Tillich, Paul. *Theology of Cultu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_____. *Systematic Theology III*.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3, 1976.

논문투고일: 2021년 6월 30일

심사개시일: 2021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04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한국적 판타지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그 윤리적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윤리와의 만남을 시도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한국적 판타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면서 내러티브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적 판타지의 한 예로 〈신과 함께-죄와 벌〉를 선택하여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윤리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것은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정의와 공정’의 실현이다. 또한 본 연구는 독자(항유자)의 내러티브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분석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윤리의식에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교회가 공동체의 구성원(교인)들에게 기독교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기독교윤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인과응보(정의)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서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기독교윤리적인 실천을 제안한다. 이는 평화·화해·용서·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는 내세중심적 세계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전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고, 평화·화해·용서·환대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미래 지향적인(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윤리적 삶을 통해서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주제어: 한국적 판타지, 〈신과 함께〉, 내러티브 분석, 내러티브 윤리, 기독교사회윤리, 폴 틸리히, 폴 리콰르, 임마누엘 레비나스
